

부처님, '시드니 페스티벌 2015'에 나투다

재·알루미늄 소재로 5.5미터 규모로 조성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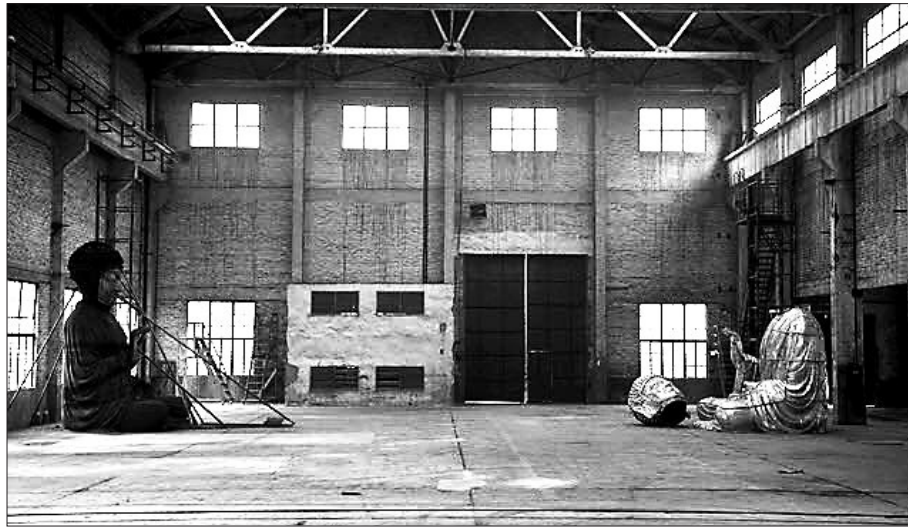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축제인 '시드니 페스티벌 2015(Sydney Festival 2015)'에 5.5미터 규모의 부처님들이 나타났다.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일명 '시드니 부처님(Sydney)'으로 알려진 대형 불상은 중국의 조각가이자 행위예술가인 장후안(Zhang Huan)과 설치미술가 베아트릭스 그랄톤(Beatrice Gralton, 호주)의 공동 작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축제가 시작된 지난 1월 8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사우스 웨일즈(South Wales) 지역의 문화·예술 복합공간 캐리워크스(Carriageworks)에 전시된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시드니 페스티벌 2015'는 1월 26일 막을 내린다.

'시드니 페스티벌 2015'에 첫 선을 보인 '시드니 부처님'은 '탄생과 죽음'을 주제로 제작된 것으로, 두 가지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부처님과 다른 하나는 '재(灰)'를 반죽해 만든 진흙을 압축·제작한 부처님으로, 서로 마주보게 전시되어 있다. 두 부처님을 마주보게 설치한 것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다.

"알루미늄 재질의 부처님은 두 번째 부처님 부처님을 제작하기 위한 틀이기도 하다"고 설명한 설치미술가 그랄톤 작가는 "장후안 작가는 알루미늄 재질로 성형한



'시드니 부처님'은 '탄생과 죽음'을 주제로 제작된 것으로, 두 가지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부처님과 다른 하나는 '재(灰)'를 반죽해 만든 진흙을 압축·제작한 부처님으로, 서로 마주보게 전시되어 있다.

'탄생·죽음' 주제 두가지 모습

재(灰)를 반죽해 만든 진흙과

알루미늄으로 불상 틀 형성

3월 3일까지 캐리워크스서 전시

조각을 서로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부처님을 제작했고, 그의 의도에 따라 알루미늄 성형 조각을 틀로 삼아 시드니에서 새로 반죽한 진흙을 압축·성형하는 과정을 밟아 두 번째 부처님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부처님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부처님은 장후안 작가가 중국 상하이 일대 사찰에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20여 톤에 이르고, 지난해 9월 중순 호주 세관의 까다로

운 검사 과정을 밟고서야 시드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재 진흙 성형에는 그랜톤 작가를 비롯해 12명의 비주얼 아티스트(visual artist)들이 참여해, 알루미늄 재질의 부처님을 틀로 삼아 화산재 진흙을 밀착·압축하는 과정을 소화했다.

"재 진흙으로 부처님을 만드는 과정에만 80일 남짓 소요됐다"고 설명한 그랜톤 작가는 "20여 톤에 달하는 재를 반죽하고, 진흙의 점력을 높이기 위해 실온에서 숙성시키고, 진흙 내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 다시 반죽하는 등 힘든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며 "전시되는 동안에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갈라지거나 파손될 수 있어 3월 3일까지 유지·보수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의 허난대학교와 중앙미술학원에서 전통회화법을 공부한 장후안 작가는 현재 상하이와 뉴욕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이자 행위예술가이다.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계 주요 작가로 알려진 그는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미국 휘트니비엔날레(Whitney Biennial, New York)에 참여했으며, 영국 사치갤러리(Saatchi Gallery, London), 프랑스 폼피두센터(Centre Pompidou, Paris), 중국 금일미술관(今日美術館, Beijing), 미국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미국 시카고현대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등에서 기획한 전시에 참여했다. 지난 2010년 10월 국내에서도 'Out of the Ashes'라는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Sydney Morning Herald》지는 미술평론가 조셉 바티스타(Joseph Baptista) 씨의 말을 인용, "재는 '향이 타고 남은 찌꺼기'에 불과하지만 장후안 작가에게 그것은 인간 정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재료이고, 따라서 장후안 작가가 이번에 선보인 작품 '시드니 부처님'에서 인간의 꿈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장후안 작가의 말을 인용, "이번에 사용된 재 역시 장후안과 그의 조력자들이 상하이 일대 사찰을 수개월 동안 찾아다니며 모았다"고 전하고 "장후안 작가는, 호주 관람객들이 '시드니 부처님'을 통해 더욱 관대하고 침착하며 평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나란다불교대학 주정부 지원받는다

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 발표... 암베드카르연구소센터 건립도

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가 나란다불교대학(Nalanda Buddhist University)과 암베드카르 연구센터(Ambedkar Research Center) 건립에 1억 루피(약 20억)와 부지 50에이커(약 21만 제곱미터)를 지원키로 했다고 《Indian Express》지가 1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주정부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불교도회의(Buddhist Conference)에서 확정, 시파라마이하(Siddaramaiah) 수석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시파라마이하 수석장관은 불교도회의에서 "주정부는 나란다불교대학과 암베드카르 연구센터 건립의 후원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카르나타카 주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붓다 프르니마(Buddha Purnima)'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데는 반대했다. 붓다 프르니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득도·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해 카르나타카 불교계가 주정부에 붓다 프르니마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것을 청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인도 카르나타카주 시파라마이하(Siddaramaiah) 수석장관. 그는 지난 4일 참라자나그르(Chamrajnagar)의 조티고다나(Jothigowdana) 사원에서 열린 불교도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불교도회의는 주정부 사상 처음 열렸다.

나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득도·열반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해 카르나타카 불교계가 주정부에 붓다 프르니마 기념일을 공휴일로 제정할 것을 청원했다.

호주, 11억원에 산 인도 불상 되돌려줘

진품이지만 美 거래상의 장물로 드러나

호주 정부가 한화 11억원을 주고 미국에서 사들인 2천년전 인도 불상을 인도 정부에 무상으로 건네주기로 했다. 고고학적 가치로 높은 진품이지만 장물(贓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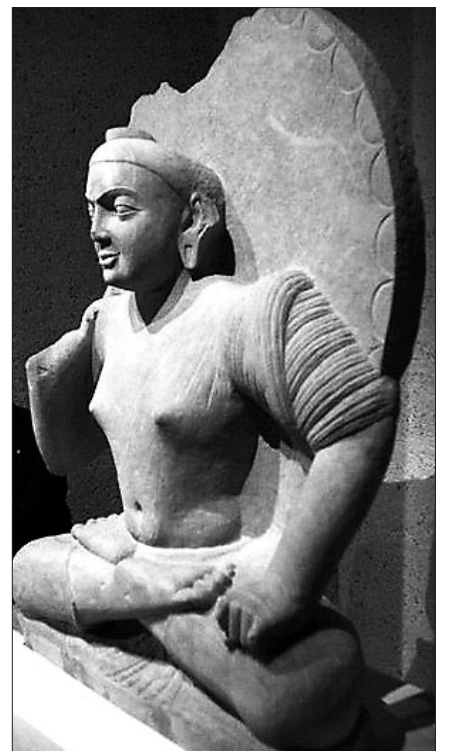
호주 언론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비롯한 인도 언론의 1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세기 무렵 인도에서 만들어진 높이 130cm짜리 석조 불상을 조만간 인도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며 "이 불상은 2007년 호주 국립미술관이 낸시 뷔너라는 뉴욕의 미술품 거래상으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 넘게 주고 사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불상이 지난해 인도에서 도난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진상 조사에 들어간 호주 정부는 불상을 판매한 낸시 뷔너가 거짓말 사실을 알아냈고, 뷔너는 매매 당시 홍콩에 사는 영국인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사온 것이라고 호주 측에 설명했다. 실제로는 인도의 도굴꾼한테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언론은 "조사 결과를 보도받은 토니 애벗 총리가 '즉각 불상을 넘겨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하는 기준은 유네스코(UNESCO)가 만든 협



호주 정부가 인도 정부에 보내주기로 한 불상. 기원전 2세기 무렵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호주 국립미술관이 뉴욕 거래상으로부터 100만달러 넘게 주고 샀는데, 장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을 따른다. 하지만 강제력이 약한 국제법이고 1970년 이후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당사국 끼리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청소년의 바른 가치관, 불교 윤리에서 찾아야

달라이 라마 21일 인 툼쿠르대 '새 천년 윤리' 주제 국제회의에서

"윤리 교육에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구랍 21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에 있는 툼쿠르(Tumkur)대학에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Tibet Post》지가 보도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툼쿠르(Tumkur) 대학과 빌라쿠페(Bylakuppe)의 세라 제이(Sera Jey) 사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불교 윤리의 가치를 재고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종교적 정치적 '폭력'에 물살을 잃고 있다"고 전제한 달라이 라마는 "폭력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에게 연민과

자비라는 불교적 가치를 심어주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불교적 윤리를 강조한 교육은 동시대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폭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하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셨다"며 "여기에서의 배움을 교육 현장에 투영한다면 자녀의 바른 습관을 기대하는 부모의 바람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작은 세계' 그 자체"라는 데 주목한 《The Times of India》지는 "이번 국제회의는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의를 얻는 자리



인도 카르나타카 툼쿠르(Tumkur)대학과 세라 제이(Sera Jey) 사원이 공동 주최로 구랍 21일 개최한 '새 천년의 윤리 - 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의 전경.

였다"며 "이는 인도 교육계가 달라이 라마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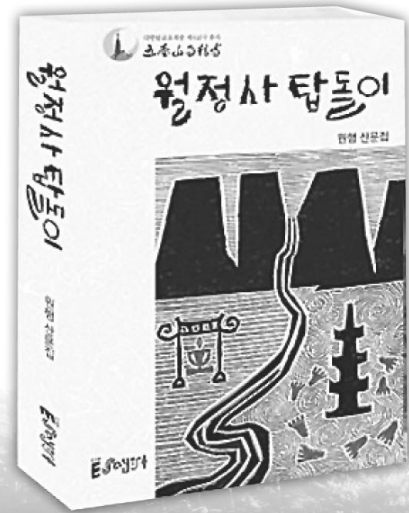
인도 카르나타카 툼쿠르대학에서 '새 천년의 윤리-불교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처음 열린 국제회의에는 자야찬드라(T.B.Jayachandra) 법무장관, 안자네야

(H.Anjaneya) 사회복지장관 등 정·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2012년 툼쿠르 대학에서 요가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서 인간성 증진을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교수'에 임명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신/간/안/내 월정사 탑돌이

사실을 '박제'하여 생명성을 제거한 것을 역사라고 해신 안된다. 역사란 반드시 살아 숨쉬는 생명의 흐름이어야 한다!



- 역사는 생명의 흐름이며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원행스님(저자)
- 불교문화와 수행의 모습이며 증언이다. 조정래(소설가)
- 근대 한국불교문화의 역사이다. 김동호(국가문화진흥위원장)
- 수행과 삶의 행적이며 문화행위로서 문학세계이다. 홍윤식(동대학사교수)

| 구입처 | 서울 : 불교신문사(02-2031-2073) 강원 : 월정사 성보박물관(033-339-6633)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 과정

- (1) 초·중급과정
 - ◆ 조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옥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랑계
 - ◆ 49재, 천도요식
-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